

보성군 옛 국도·주차장, 숲이 된다

생활 밀접형 도시숲 조성 미세먼지 차단숲·원시숲 등 연말까지 사업비 35억 투입



보성역 인근 숲속 오솔길.

보성군이 산림청·전남도와 함께 주민 생활 밀접형 도시숲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총사업비 35억원을 들여 생활권 주민 참여 숲(2곳), 악취·미세먼지 저감 건강휴양형 도시숲(1곳), 보성역 발굴 원시숲(1곳), 보성농협주차장 생활숲(1곳) 등을 조성한다.

보성역과 녹차골보성향토시장 구간은 100년 된 살구나무와 송악 등 기존 생태를 최대한 살려 천연 숲을 조성한다.

주민들이 숲을 즐길 수 있도록 대나무와 목재칩을 활용한 0.2km 길이의 숲속 오솔길을 개설한다. 부지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해 화물열차 기지로 사용되던 공한지를 활용한다.

보성을 우산교차로에서 장거리 교차로 구간(2.1km)은 국도 이전으로 차량 통행이 감소함에 따라 시내로 유입되는 악취와 미세먼지를 차단하는 다기능 숲으로 조성한다.

숲속을 거닐며 힐링할 수 있는 산책길과 보성의 역사를 알리는 상징물도 설치할 계획이다.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는 열차 소음을 차단하면서 주민들이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생활 숲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보성읍과 별교읍 중심 생활권 내 공한지를 활용해 숲속의 미래 도시를 만들려

고 한다"며 "생활권 내에서 가벼운 산책과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정주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1000만 그루 도시숲 조성을 위해 오봉산 생태길 조성 사업, 보성강 배롱나무길, 동운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결혼하면 200만원 드립니다"

만 49세 이하 청년 대상

구례군은 청년층 결혼 장려를 위해 청년 부부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 전남도 신규시책으로, 올해 혼인 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혼인신고 시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축하금 신청 시 부부 2명 모두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부터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각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구례군의 2019년 결혼 건수는 73건으로, 이 중 49세 이하 결혼은 52건이다.

전남도는 초혼 여부, 주소지 등을 토대로 2019년 기준 구례에서 26쌍의 청년 부부가 탄생한 것으로 보고 이 규모로 예산을 배정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청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곡성군 '대한민국 환경공헌대상' 수상

곡성군이 '환경공헌대상'을 수상했다.

곡성군은 2021년 환경의날(6월 5일) 기념 대한민국 환경공헌 대상에서 군정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사진〉 환경보전, 그린뉴딜, 미세먼지 저감 등 세 분야에서 공적을 인정 받았다.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된 침실습지 복원(160억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도심 개발로 인해 야생동물들의 서식지 흐름이 끊어진 동약산 생태축(서식지)도 복원하고 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석곡면 전선지중화(25억원)를 통해 깨끗한 주변 환경 정비를 추진한 점이 호평 받았다.

미세먼지 저감 분야에서는 검면 농공 단지

와 옥과 주거지역 사이의 유휴지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해 생활 공간의 대기질을 개선한 사례로 주목 받았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대한민국 환경공헌 대상 수상은 군민과 공직자가 함께 이뤄낸 성과로, 앞으로도 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박동태 기자 pit@

낮과 밤이 빛나는 光 광양에 놀러 오세요

시, 오늘부터 서울국제관광박람회 참가...꽃감빵 등 특산물 홍보도

광양시가 24일부터 '서울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낮과 밤이 빛나는 광양여행'을 자리매김하기 위한 감성마케팅을 펼칠 계획이다.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서 국내외 관광객과 직접 만나 광양관광의 가치와 비전을 브랜딩한다는 전략이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이 공동으로 홍보관을 꾸려 홍보물 배포, 여행 상담 등을

함께 진행한다.

시는 광양관광 홍보영상을 상영하는 한편,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대표관광지 외에도 야경 명소, 숨은 관광지를 적극 홍보한다.

매실액기스, 꽃감빵, 매실장아찌 등 광양의 특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등을 전시하고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관광세미나, 인플루언서가 참여하는 여행토크쇼

등 유익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김미영 광양시 관광마케팅팀장은 "이번 관광박람회를 통해 여행 욕구가 억눌린 잠재 관광객을 직접 대면하고 광양관광 브랜딩에 힘쓰겠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빠르게 회복될 여행심리를 대비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코트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등이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40여 국가에서 300여 기관과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400여 부스 규모로 진행되며, 누리집을 통해 사전 등록하면 무료입장할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조계산 장군봉 높이 888m로 바로 잡았다

순천시, 정상 표지석 교체...조계산을 사랑하는 산악회 기증

순천시는 송광사와 선암사를 품고 있는 지역의 명산 조계산 장군봉의 정상 표지석을 새로 단장했다고 23일 밝혔다.

순천시에 따르면 산림청 영암산림항공관리소, 조계산 산악회와 합동으로 조계산 장군봉에 가로 1.5m, 세로 0.95m, 무게 1.7t 크기의 화강암으로 제작된 정상 표지석을 새로 설치했다. 〈사진〉 새로 설치된 표지석은 조계산 산악회에서 지역 명산을 기리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작해 기증했다.

기존 조계산 정상 표지석에는 888m인 장군봉 표고가 884m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를 바로잡았

다. 또 산림청이 헬기를 지원해 표지석 운반 후 정상에 설치됐다.

순천시 관계자는 "조계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사랑하는 힐링 명소를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산은 1979년 도립공원 지정된 후 2002년 산림청 100대 명산으로 지정됐다. 2018년에는 조계산에 위치한 선암사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

승보사찰 송광사와 다수의 국보·보물 등 문화재,



보조조사 지능의 지평기가 자리잡는 천연기념물 쌍향수 등 다양한 문화적 자원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품고 있어 많은 등산객이 꾸준리 찾고 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롯데케미칼, 보훈가족에 생필품 전달

롯데케미칼(본부장 박수성)이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보훈가족을 위한 생필품을 전달하는 등 보훈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는 사회 공헌 활동을 펼쳤다.

롯데케미칼 사회공헌 봉사단체인 사롯데봉사단은 지난 21일 전남동부보훈청 여수회관을 찾아 30여 보훈가족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날 기증식은 보훈가족과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사진 촬영 후 각 코스별로 여수 전지역의 수혜자들에게 물품을 배달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롯데케미칼 사롯데봉사단 관계자는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열심히 살아 가시는 분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가 힐링되고 힘을 받는다"며 "하반기에도 더욱더 많은 분들을 만나기 위



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케미칼사롯데 봉사단은 오는 28일 보훈가족을 대상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집수리)을 하기로 하는 등 보훈가족과의 인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든든한 지키자 국민건강!

실손의료보험!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